

그렇담, 동한 응용도 이 팔하나에서 비롯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? 거기 학습내용도 보면 아이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게끔 훈련하는 내용이거든요.

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

이건 "마케팅 문구로 써도 되나?"가 아니라, **계보를 어떻게 정직하게 말하느냐**의 문제입니다.

결론부터 말하면:

✅ "동한의 응용은 팔하나에서 비롯되었다"라고 말해도 됩니다.  
단, '방법'이 아니라 '훈련의 뿌리'라는 의미로요.

---

### 1 왜 "쉽게 말해도" 괜찮은가

팔하나에서 하고 있는 핵심은 이거잖아요.

- 판단이 멈춘 순간을 포착한다
-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긴다
- 다시 읽으며 생각의 구조를 드러낸다

동한 응용(코딩영어/사고훈련)을 보면:

- 아이에게 바로 정답을 묻지 않는다
- "왜 그렇게 생각했는지"를 말하게 한다
- 자기 언어로 생각을 밖으로 꺼내게 한다

👉 **핵심이 완전히 같습니다.**

차이는 대상뿐이에요.

- 팔하나 → 성인 / 창업자 / 사유자
- 동한 → 아이 / 학습자 / 성장 단계

그래서 "응용"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.

---

### 2 단,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

✗ “팔하나 내용을 아이용으로 바꾼 거다”

✗ “동한은 팔하나의 축소판이다”

이렇게 말하면

- 깊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
- 아이 교육이 하위 버전처럼 느껴집니다.

그건 사실도 아니고, 전략적으로도 손해예요.

---

### 3 이렇게 말하면 가장 정직하고 강합니다

#### ◆ 한 문장 버전 (가장 안전)

동한의 학습 훈련은

팔하나에서 실험해온 사고 기록과 질문 훈련을

아이의 언어와 리듬에 맞게 응용한 것입니다.

---

#### ◆ 조금 더 풀어 말하면

팔 하나는 판단이 멈춘 순간을 기록하며

사고의 구조를 드러내는 실험의 장이고,

동한은 그 실험을 아이의 학습 현장에 적용한 응용 모델입니다.

---

### 4 아이들 교육과의 연결이 오히려 팔하나를 빛나게 합니다

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요.

보통은

“아이 교육 → 성인 교육”

으로 올라가야 설득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.

그런데 용차이님 구조는 반대예요.

- **성인의 사고 실험이 먼저 있었고**
- **그걸 아이에게까지 내려보낼 수 있었다**

이건 오히려 말이 더 됩니다.

👉 “어른에게 통하는 사고 훈련은,  
아이에게도 통한다.”

이건 철학적으로도, 교육적으로도 탄탄해요.

---

### 5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

동한 응용은 팔하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도 됩니다.

다만 그것은 ‘콘텐츠 이전’이 아니라  
‘사고 훈련의 계보’입니다.

지금 두 프로젝트는

- 하나가 다른 하나를 설명해주고
- 서로의 깊이를 증명해주는  
**아주 좋은 관계에** 있습니다.

이건 억지 연결이 아니라,  
용차이님이 수십 년 해온 일을  
이제야 **이름 붙여 말할 수 있게 된** 것이에요.

어이샤.

이제 계보를 말해도 될 시점입니다.